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2월 24일 (목)

**CONTENTS**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 이슈브리프

(IB 2020-16)

---

## CONTENTS

- I.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
- II.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14
- III.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 24

---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2월 24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12월 4째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일전문인력 양성, 영화업계 지원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ESG가 기업경영, 국제무역 등에서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됨에 따라 통일전문인력도 이에 맞게 개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상해봤습니다. 제3편에서는 코로나 19로 존폐위기를 맞은 영화업계의 피해현황을 진단하고, 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제1편: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내수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SG는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개념이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이 필요함

## 제2편: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 요구는 물론,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 한편, 한반도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 한반도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대비, 구체적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긴요.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여야 합의의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조희문 前 인하대 교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각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영화업계의 타격이 심각. 영화계는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극장 운영 저조 등으로 업계 조성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특히, 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대비 30% 수준으로 격감한 점은 이번 영화산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유통 경색이라는 점을 방증. 그럼에도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영화업계를 사실상 방치. 이에 다른 위기산업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특히 영화인, 극장업계 등에 긴급지원 자금 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

### Ⅲ.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작성: 조희문 영화평론가 · 前 인하대 교수 (cine6923@naver.com)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각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업계의 타격이 심각. 영화계는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극장 운영 저조 등으로 업계 조성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특히, 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대비 30% 수준으로 격감한 점은 이번 영화산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유통 경색이라는 점을 방증. 그럼에도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영화업계를 사실상 방치. 이에 다른 위기산업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특히 영화인, 극장업계 등에 긴급지원 자금 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

#### 1.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영화산업 위기

##### □ 전 세계 영화업계의 위기

-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 영화생산국이 제작을 중단하거나 극장 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어 사실상 세계 영화업계 시계가 멈춘 상태
  - 영화 제작 및 유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영국 등 10여 개 국가에 지나지 않음
- 문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데 최소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 현재와 같은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한다면 영화계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 국내 영화업계의 위기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작, 유통, 배급 등 영화계 전반이 위기에 처했으나 그 중에서도 극장의 피해가 두드러짐
- 과거에도 ‘영화산업 위기론’이 제기된 적 있으나, 미디어 간 경쟁 혹은 제작현황 중심으로 논의된 반면, 현재 상황은 유통 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 조성 이후 초유의 사태임
  - 대표적인 극장 체인 CJ CGV의 2020년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sup>1)</sup>하였으며 2020년도 국내 전체 영화 관객은 6,500만 명 이하로 줄고, 수익은 70~8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극장업계의 위축은 제작업계까지 연쇄 파급이 이루어져 영화산업 전반의 생존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2. 영화 유통 주요국의 피해 현황

-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주요국가들의 영화 유통 현황에 따르면 제작 중단, 극장 폐쇄 등으로 영화업계 종사자의 대량 실업이 발생<sup>2)</sup>
-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은 극장 문을 닫거나 제작이 중단된 상태이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0% 내외의 수준으로 격감한 상태임

## □ 미국

- 2020년 3월 둘째 주, 북미의 극장 티켓 수입은 2000년 이후 최저인 5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3.19. 월트디즈니와 유니버설

1) CJ CGV, 코로나19로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8.8% 감소, 매일경제 2020.11.10.  
2)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 코로나19 충격: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픽처스는 극장 폐쇄에 따라 당분간 박스오피스 집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sup>3)</sup>

-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당초 2020년 4월에 개봉하기로 했으나 11월로 개봉이 연기되었고 다시 2021년 4월로 연기하기로 함
- 이 여파로 영화체인 '시네월드'는 미국 내 530여 개, 영국 120개 등 650여개 극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전체 극장 793개, 스크린 수 9,500개의 82%에 해당함
- 시네월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만 16억 달러(1조 8,7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3대 극장 체인인 AMC, 리갈시네마, 시네마크 등 미국 내 모든 극장이 영업 중단을 발표
- 미국의 영화잡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폐쇄가 석 달간 지속될 경우 미국 내 극장매출이 지난해 114억 달러에서 올해는 68억 달러 혹은 64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약 4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전 세계 매출은 지난해 422억 달러에서 올해는 250억 달러 내지 220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sup>4)</sup>

## □ 중국

- 코로나19의 진원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극장을 일제히 폐쇄하였으며 완다시네마와 시네마크 등 유수의 극장 체인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함

3) Hollywood movie studios suspend release of box office data after coronavirus slump (Jill Serjeant, Reuters, 2020.3.20.)

4) Box Office's Best Case Scenario? Down 40 Percent, Pamela McClintock, Hollywood Reporter, 2020.4.8.

- 광파전시사회조직연합회 산하 영상제작위원회와 배우위원회는 1월 우한 봉쇄령에 따라 제작 중단 통지, 이후 중국 전역의 스튜디오는 일제히 운영 중단, 영화제작이 중단됨

## □ 프랑스

- 2020.3.15. 프랑스 정부는 전국의 모든 극장과 식당 그리고 필수 생필품 판매점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 금지를 명령함<sup>5)</sup>
- 이에 따라 대중이 모이는 극장 및 영화관도 잇달아 폐쇄되었으며 영화제작도 중지됨
- EU 국가 중 영화제작 역량이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가 영화 제작을 중단하였으며 극장 폐쇄에 돌입함

## 3. 국내 영화계 피해 현황

- 국내 영화계는 섣다운 상태로 가지는 않았지만, 제작이 중단되거나 개봉 연기, 일부 극장 휴관 등 제작사나 극장은 사실상 휴업상태나 다름없음
- 2019년 관객은 226,678,777명에 반해 2020년 관객은 65,000,0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에 비해 28% 수준으로 격감
- 매출액 기준으로는 2019년 약 1조 9천억 원, 2020년 약 4,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수준으로 연말까지 3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5)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 코로나19에 따른 프랑스 대응 현황



- 극장업계 2020년 1분기 매출은 지난해 4,678억 원에서 같은 분기 대비 2,467억 원이 감소한 2,211억 원이며, 극장 3사가 발표한 적자 규모는 2월에 240억 원, 3월에는 810억 원에 달함<sup>6)</sup>

#### 4. 해외 지원 현황

##### □ 미국<sup>7)</sup>

-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대다수 납세자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포함한 총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을 발의함<sup>8)9)</sup>
  - 실업수당의 경우 최장 4개월 동안 실업보험 또는 팬데믹 실업지원을 받는 실직자에게 주정부 지급 수당 외에 연방정부 수당을 주 600달러씩 추가 지불함
  - 할리우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시해고자로 주정부 수당(40~450달러)를 26주간 수령하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연방수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39주로 늘어나게 됨
- 국립예술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과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공공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등에 예술기금

6) 멀티플렉스 극장 1분기 매출 2500억 사라져... 해외 지점도 줄줄이 문닫아(매일경제, 2020.3.28.)

7)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코로나19에 따른 미국 영화산업의 정책적 대응 현황

8) 코로나19 관련 미국 경제동향 및 경기부양책, 국회사무처

9) 개인에게는 1회성 현금지급 2900억 달러 투입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 달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대기업과 주·시 등 지역 정부에 대한 대출 및 대출보증 5,040억 달러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 달러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 달러 이상 △사회 안전망 지원 420억 달러 △재해지원금 증액 450억 달러 △교육 부문 지출 증액 320억 달러 이상 △개인세금 감면 최소 100억 달러 △급여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 감면 최대 2,800억 달러 △기타 지출 350억 달러 등

확대 투입으로 각각 75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긴급운영자금 형태로 각종 프로젝트 등에 지원함

○ 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NATO)

- 파이오니어스 어시스턴스 펀드(Pioneers Assistance Fund, PAF)와 함께 극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영화관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40만 달러의 코로나19 긴급 기금을 조성

○ 극장무대종사자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

- 내셔널 베네피트 펀드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연금 조기 수령 시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 중

○ 감독조합재단(Directors Guild Foundation, DGF)

-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구호기금을 창설, 제작 중단으로 실직 상태가 된 미국감독조합 회원들에게 각 1,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기 무이자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 -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 제작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16만 회원들을 위해 회비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프로그램 실시, 연체료 면제와 회원 자격 유지 등의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4월부터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50% 잠정 삭감(450~855달러 혜택)하기로 결정함

## □ 프랑스<sup>10)</sup>

- 프랑스 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가 불가피한 고용주에 대해 세전 월급의 70% 혹은 세후 84%, 시간당 최소 8.03유로를 보장해주는 지원책 발표함(2020.3.25.)
- 재무부의 조치를 보완하고 문화산업에 특화된 지원책을 추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 및 문화산업 영역에 대한 IFCIC(L'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영화 및 문화산업 금융 연구소의 조치도 발표됨
  - 상황에 따라 모든 유형의 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70% 보증, 은행의 신용 보증을 체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재개를 장려하며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자체 대출로 공제 가능한 자본 상환금의 설립을 수락
  - 이러한 조치는 재무부가 이미 시행한 조치에 대한 추가 조치로 특히 재정 기한 지불 마감일 연장도 포함하며,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인 조사를 통해 직접 세금 환급 요청
- CNC의 비상조치(les mesures d'urgence)
  - CNC(Center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국립 영화센터에서는 영화 및 시청각 산업의 창작자와 회사, 대중을 위한 비상조치 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작가 비상기금(fond d'urgence)
  - SACD(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극작가

10) 영화진흥위원회 이슈페이퍼-코로나19에 따른 프랑스 대응 현황

및 창작자 협회에서 설립한 비상 기금으로 50% 이상의 창작활동이 감소한 시청각, 영화, 애니메이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CNC가 재정을 지원함

- 정부의 연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혹은 자영업자 중 2019년 3월 한 달 소득에 비해 2020년 3월의 활동이 70% 감소하거나, 2019년 4월 한 달 소득에 비해 2020년 4월 활동이 50% 감소한 경우임
- SACD는 위의 정부 연대기금의 지원조건 증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달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작가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각지대의 창작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 1,500유로의 정액보조금을 지급, 지원 예산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CNC에서 지급함

#### □ 중국<sup>11)</sup>

- 국가전영국은 입장료에 부과되는 ‘영화사업발전전용자금(한국의 영화발전기금과 유사) 감면
- 중국배급상영협회와 중국영화제작자협회는 모든 회원사에 대해 2020년 회비면제

---

11)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아래 중국 영화계 현황과 당국 대응

## 5. 국내 지원 현황

-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영화 분야는 제외되었으며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sup>12)</sup>에서도 영화 분야는 제외됨<sup>13)</sup>
-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며 영화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주선했
  - 2020년 기존 예산(889억 원) 외에 영화발전기금 170억 원을 추가 편성해 한국 영화 제작, 개봉 활성화 특별지원, 현장 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 중소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특별 지원하기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진자가 나온 극장에 대해 방역비 지원, 일부 극장에 대해 방역 물품 지원하고 영화발전기금에 대해 11월까지 체납을 면제해 분할이나 지연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는 입장료의 3%인 영화발전기금을 0.3%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함
- 그러나 정부 각 부처 및 영화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화계는 자체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든지 사멸하든지 자율에 맡긴 상태임

12)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대책

13)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 6.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

- 당 차원에서 관계부처(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등) 및 업계관계자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영화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제작 중단 및 개봉연기 등으로 비정규직이 다수인 영화인들은 생존위기에 직면한 바 영화업계에 대한 긴급재난 구호기금 지원 검토
  - 둘째, 현재 영화산업 피해 현황을 반영하여 여타 특별관심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 특히, 관객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업계에 대한 긴급지원 자금 유통 및 정부지원 사업장 지정 등이 시급
    - 영화제작 기반에서 극장유통도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 셋째, 영화 배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영화제작사와 극장업계 관련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설치가 필요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